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정의로운 평화

기독교의 평화론

이진구 |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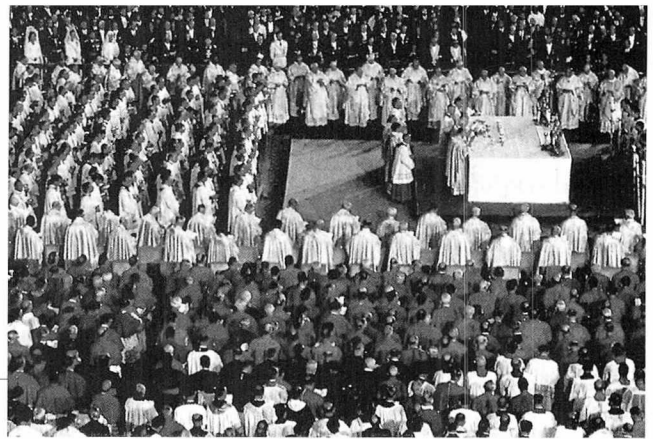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평화를 내세우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기독교도 여느 종교만큼이나 평화를 내세운다.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평화를 '샬롬'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샬롬은 원래 히브리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에서 기원한 용어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질 때 '안녕!'이라는 말을 쓰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평안을 기원한다.

고대 유대교의 샬롬 개념이 다른 종교전통의 평화 개념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정의' (justice)와의 관련성일 것이다. '로마의 평화' (Pax Romana)나 그것의 현대판인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가 강자의 힘에 의한 지배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데 비해, 샬롬은 불의한 질서와 부정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샬롬은 불의와 손잡지 않으며 항상 정의와 입맞춘다.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 정의가 전제되지 않는 강자 중심의 지배질서는 '거짓 평화'로 간주된다. 정의와 결혼해 낳은 열매만이 '참된 평화'로 간주되는 것이다.

초기교회, 정의에 기초한 평화 주장해 초대 교회는 이런 유대교의 샬롬 개념을 계승했다. 예수는 억압에 기초한 강자의 논리인 '팍스 로마나'를 철저히 배척하고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주장한 유대교의 예언자 전통에서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정의로운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폭력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의식했다. 정의의 실현을 위한 폭력의 사용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결국 궁극적 목표인 참된 평화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예수가 '팍스 로마나'에 무력으로 대항한 유대 민족주의 세력인 켈롯당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노선의 차이 때문이었다.

예수가 '정의로운 평화'의 실현을 위해 제시한 길은 '대항 폭력'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였다. 그가 선택한 길은 지배체제에 대한 적극적 영합의 길도 아니고 폭력을 통한 체제전복의 길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저 참고 견디는 순응의 길도 아니었다. 그가 택한 길은 제4의 길이였다. 즉 비폭력에 근거한 저항의 길이였다.

이런 비폭력 투쟁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가르침이 바



기독교의 평화론은 불의와 악에 대항하면서도 죄인과 원수를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포용한다. 사진은 천주교의 성찬식 장면.

로 저 유명한 '산상설교'다. 이 설교의 핵심은 악인에 대항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즉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사랑'의 경지로까지 나아가라는 것이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겹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동행하라는 명령이다. 이런 가르침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전통적 해법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렇다고 이런 예수의 가르침이 악과 불의 자체에 대한 타협이나 굴복을 지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가 취한 태도다. '대항 폭력'은 일시적 평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영구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불의에 대한 굴복은 평화의 토대인 정의 자체를 위면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예수는 불의와 악에 철저히 대항하되 죄인과 원수를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포용함으로써 정의에 기초한 '평화의 왕국'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 철실하게 요구되는 시대 그러나 2천년의 역사를 거처온 기독교는 예수의 평화 강령을 어느 정도 구현해 왔는가? 초대 교회와 일부의 기독교 평화주의 공동체를 제외하면 교회 역사에서 예수의 근본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아닐까? '의로운 전쟁' (just war)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와 교회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십자군'의 이름 아래 선량한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해온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 교회가 각각 상대방 정권과 교회를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의 잔혹한 대 테러 전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즘 만큼 '평화의 왕' 예수의 가르침이 철실하게 요구되는 때는 없는 것 같다. ■

이진구씨는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한국 근대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인식: 개신교 오리엔탈리즘과 불교 옥시멘탈리즘> <근대 한국사회의 종교자유 담론: 양심의 자유와 종교집단의 자유> <기독교의 이상적 인간상> 등이 있다.